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105)

제3부 :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43 (4)108여단 주둔지-(4)안돌오름·밭돌오름
선이 고운 오름이 일본군 요새로

입력 : 2008. 06.05. 00:00:00



▲밭돌오름에서 바라본 안돌오름의 부드러운 능선. /사진=이승철기자

분화구 안팎서 갱도진지 20여곳 찾아내 주저항진지로 구축 日 군사지도와 일치

지난 2월부터 취재팀의 집중 탐사지역 중 하나는 안돌오름과 밭돌오름이다. 두 오름은 마치 쌍둥이처럼 능선을 나란히 하고 있다. 분화구를 제외한 오름 사면이 거의 초원으로 이뤄져 있어 선이 고운 오름의 하나로 통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관이 뛰어난 오름은 하나같이 일본군 요새로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경관이 좋은 오름은 대부분 주변 조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전략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요지임을 의미한다.

안돌오름과 밭돌오름 역시 겉과 속이 다르다. 걸보기에는 부드러운 초원형 오름이지만 지하는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이 만든 많은 갱도진지들이 숨겨져 있다. 취재팀이 이곳 일대에서 새롭게 찾아낸 갱도진지는 무려 20여 곳에 이른다.



▲안돌오름 분화구 내에서 확인된 태평양 전쟁시기 일본군 갱도진지 입구.



▲안돌오름에 구축된 일본군 갱도진지 내부 공간.



▲일본군 갱도진지 내부를 조사하고 있는 취재팀.

안돌오름과 밧돌오름은 두 곳 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대에 위치해 있다. 정상부에 올라서면 주변 오름군이 한눈에 잡히는 요지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안돌오름(內石岳·표고 3백68.1m)에서는 분화구 내부와 오름 남쪽 사면에서 일본군 갱도진지 10여 곳이 확인된다. 갱도는 모두 검붉은 스킨리아(scoria)층을 뚫었다.

안돌오름에서 확인된 일본군 갱도진지는 오밀조밀 하다고나 할까. 제주 서남부에서처럼 대형 갱도는 확인되지 않지만 작으면서도 비교적 짜임새 있게 구축됐다. 그러면서도 딱히 정형화 되지 않은 특징을 보여준다.

오름 분화구 안쪽 북사면에서 찾은 갱도는 전체 길이가 약 50여m 규모다. 이 갱도는 북북서 방향으로 입구가 나 있다. 맞은편 분화구를 마주하는 지점이다. 갱도는 폭이 약 70c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좁다. 그야말로 '땅굴'이다. 높이는 약 1백70cm 정도 된다. 내부 깊숙한 통로에는 적막 뿐이다. 숨이 막혀온다. 소총 등 개인화기로 무장한 병사 1명이 통과하기에는 좁은 공간이다.

취재팀은 분화구 내부 남사면에서 또 하나의 갱도를 발견했다. 이 갱도는 5m 정도의 진입부를 지나면 왼쪽으로 30도 정도 하향 전개된다. 갱도 내부 바닥에서는 껌쇠와 쇠못을 볼 수 있다. 당시 갱도진지를 구축하면서 갱목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했던 흔적들이다. 이 갱도는 전체적으로 하향 전개되고 있어 공사가 더 진전됐더라면 분화구 하단부 쪽으로 연결됐을 것으로 보인다. 입구쪽은 이끼가 무성하다. 햇빛에 투명하게 반사된 이끼가 눈이 시리도록 푸른 광경을 연출한다.

근처에서는 또 다른 갱도가 취재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갱도는 전체적으로는 L형태로 길이는 40m 정도다. 입구로 진입하자마자 20여m 하향 전개된다. 비교적 경사가 심해 당시에는 바닥에 계단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벽면에는 갱목홈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분화구를 벗어나 7~8부 능선 지점을 중심으로 오름 바깥사면을 휘젓고 다니자 가시덤불이 무성한 시커먼 입구가 나타났다. 오름 남사면에서 또 하나의 갱도가 확인된 것이다. 이 갱도는 전체길이가 50m 정도 된다. 끝부분은 하향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남사면에서는 이 지점을 따라 입구가 함몰된 갱도흔적이 줄지어 나타나 당시 많은 군사시설들이 구축됐음을 알 수 있다.

안돌오름은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주저항진지의 하나로 구축됐다. 이는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건도 제주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취재팀의 실제 탐사 결과 일본군 군사지도와 상당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일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제주도에 일본토결전을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탐사 포커스]규모 작지만 밀집도 높아 주목

제주 동부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취재팀이 탐사에 나설때마다 일본군이 태평양전쟁 시기에 만든 갱도진지 등 군사시설이 대거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돌오름의 경우가 좋은 사례의 하나다. 이곳에서는 분화구 내부는 물론 바깥사면에도 많은 갱도진지들이 구축돼 있다.

아직까지 확인된 일본군 갱도진지는 그 길이가 거의 다 1백m를 넘지 않는다. 갱도의 폭도 70cm~1백20cm로 좁은 특징을 보여준다. 대신 갱도진지 등은 10여 곳 이상 밀집돼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준다.

왜 그럴까. 이는 일본군 주둔부대와 성격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전쟁 시기 제주 동부지역 주둔 부대는 일본군 108여단 6천여 병력이다. 108여단은 유격전을 위한 부대로 제주 동부지역은 유격진지대로 상정됐다. 즉 말 그대로 게릴라전을 위한 부대인 것이다. 때문에 대규모 병력이 정주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위험하고 전략상 필요치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신에 거점진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수의 갱도진지 등을 구축해 연합군이 내륙으로 진입할 경우에 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